

초점

May 2026 No.2

이동전화 번호이동 추이와 시사점

이보겸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정책연구실

이동전화 번호이동 추이와 시사점

이보겸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정책연구실, bokyumlee@kisdi.re.kr

요약

-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은 과거에 비해 낮은 이동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25년에는 침해사고라는 외부 충격 및 단말기유통법 폐지라는 제도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임
- 번호이동 통계에 기초한 가입자의 '잔존' 및 '전환' 확률 분석 결과, 잔존확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다 '22년(91~95%)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5년의 특정 이벤트가 이러한 하락 추세를 심화함
 - (SKT) 89.5%('15년) → 94.2%('22년) → 93.6%('23년) → 93.4%('24년) → 90.3%('25년)
 - (KT) 84.8%('15년) → 93.2%('22년) → 92.3%('23년) → 92.0%('24년) → 91.8%('25년)
 - (LGU+) 83.4%('15년) → 91.4%('22년) → 90.9%('23년) → 90.3%('24년) → 89.7%('25년)
 - (MVNO) 90.6%('15년) → 94.7%('22년) → 94.0%('23년) → 92.8%('24년) → 91.3%('25년)

※ '잔존확률'은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그 사업자를 유지할 확률, '전환확률'은 사업자를 이동할 확률을 의미, 본고에서 제시하는 잔존 및 전환확률은 번호이동 실적 기반 지표로서 신규가입 및 해지 등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 '25년 중에는 시기별로 가입자 이동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확인됨
 - ('25.4~5월) SKT 침해사고 여파로 번호이동 시장구조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SKT의 신규 영업 중단 등이 맞물림에 따라 SKT의 잔존확률만 감소하는 'SKT로부터의 일방향 이동'이 나타남

-('25.7월) SKT 위약금 면제 조치 및 단통법 폐지 배경 등에 의한 '양방향 이동' 국면으로, 전 사업자의 잔존확률이 동시에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됨

※ 5월은 SKT의 신규 영업 중단(5.5~6.23일)으로 가입자 유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탈만 발생하였으나, 7월은 위약금 면제 조치로 유출과 유입이 동시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들어 관찰된 번호이동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현재까지는 시장의 근본적인 장기 구조 변화보다는 사건 중심의 단기적 반응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개요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MNP, Mobile Number Portability)은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
 - '04년 2G 이동전화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이동통신 시장 내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됨
 - 번호이동 규모와 사업자 간 이동 패턴은 시장 내 경쟁 수준과 가입자 이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활용됨
- 본고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자 간 가입자 이동 구조를 분석하고, 주요 사건 및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도별 및 월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자 간 이동 흐름과 가입자의 잔존·전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
 - 잔존확률 및 전환확률 지표를 통해 가입자 유지 수준과 이동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특히 '25.4월 SKT 침해사고와 이에 따라 시행된 S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그리고 '24년부터 추진되어 '25.7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 및 정책 변화가 가입자 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
 - * '25.4.18일 외부 공격으로 인해 SKT의 유심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SKT는 '25.7.4일 “침해사고 발생 전인 4.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힘
 - ** '14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여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제가 폐지됨
- 이를 통해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 내 가입자 이동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사건 및 정책 변화가 가져온 변동이 단기적 현상인지 혹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함

02 이동전화 번호이동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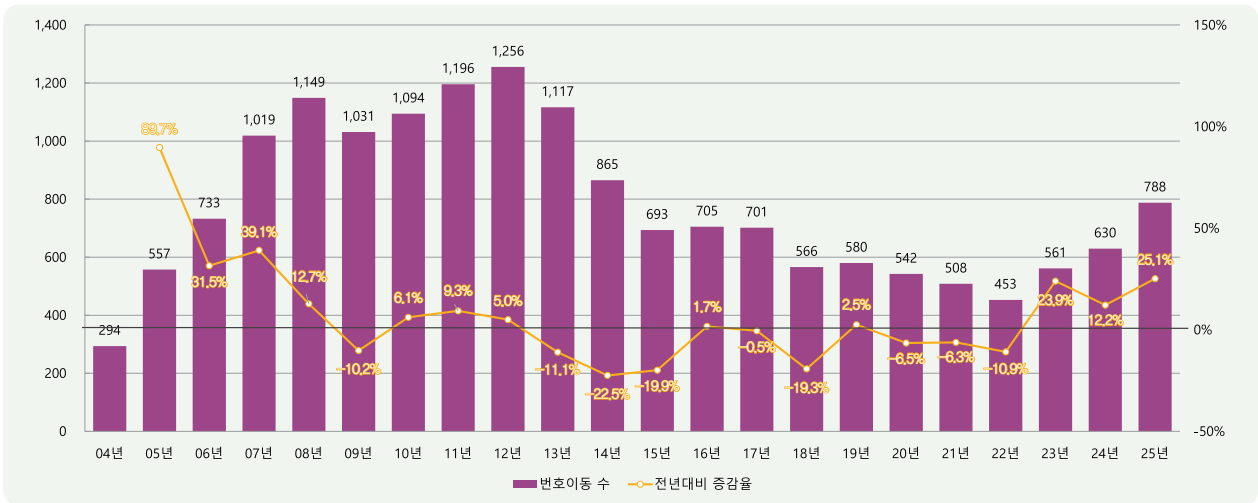
- 본 장에서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규모 및 비율을 연도별·월별로 분석하여 가입자 이동 흐름의 변화를 파악함
 - 특히 최근 2년간 월별 추이와 휴대폰 가입유형별(번호이동 vs 기기변경) 회선수 변화를 중심으로, SKT 침해사고 및 단통법 폐지, 위약금 면제 조치 등 주요 사건·정책이 번호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I 연도별 분석

- 번호이동 규모는 제도 도입 초기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 감소 및 안정화 과정을 거치다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발했던 시기로 번호이동 규모가 빠르게 증가함
 - '04년 약 294만 건 수준이었던 번호이동은 '05년 557만 건(+89.7%), '06년 733만 건(+31.5%)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2년 약 1,256만 건으로 정점을 기록함
- '13년 이후에는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율 둔화와 단통법 시행('14.10월) 등의 영향으로 번호이동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13년 1,117만 건에서 '14년 865만 건(-22.5%), '15년 693만 건(-19.9%)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대체로 500만~700만 건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임
 - '20년 이후에도 번호이동 규모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2년 약 453만 건으로 해당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23년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임
 - '23년 561만 건(+23.9%), '24년 630만 건(+12.2%), '25년 약 788만 건(+25.1%)으로 증가하며 최근 번호이동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그림 1 | 연도별 이동전화 번호이동 추이

(단위: 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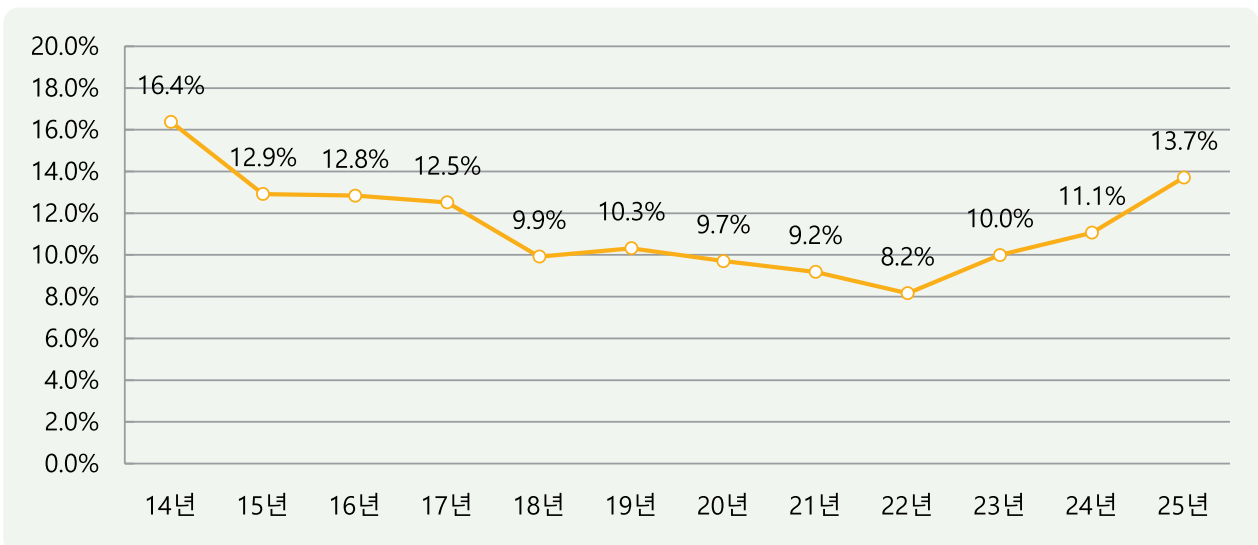
자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 최근 10년간 번호이동 비율*은 '14년 16.4%에서 '22년 8.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5년 13.7% 수준까지 상승

* 번호이동 비율은 연도별 번호이동 규모를 휴대폰 회선 수로 나누어 산출한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이용자의 사업자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번호이동 비율 추이는 전체 번호이동 규모 추이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임

그림 2 | 연도별 이동전화 번호이동 비율 추이



자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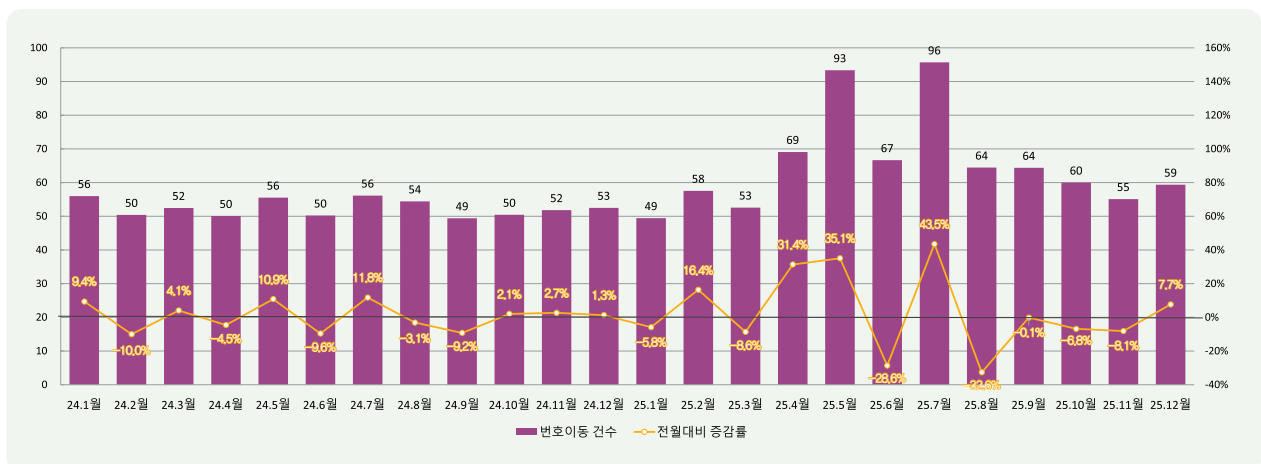
I 월별 분석

가. 월별 번호이동 추이

- 최근 2년간 월별 번호이동 규모는 50만 건 내외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25년 중반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24년에는 월별 번호이동 규모가 약 49만~56만 건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전월 대비 증감률도 대체로 ±10% 내외 범위에서 변동
- '25년 들어 번호이동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4월 SKT 침해사고 이후 증가폭이 확대됨
 - 1~3월에는 약 49만~58만 건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4월 69만 건, 5월 93만 건으로 크게 증가, 이후 6월에는 67만 건으로 소폭 감소하며 전월 대비 -28.6%를 기록
 - 7월에는 SKT의 위약금 면제 조치(7.4일~7.14일)와 단통법 폐지 시행(7.22일)*의 영향에 따라, 96만 건까지 증가하며 전월 대비 4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 7.22일,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반영되어왔었기 때문에, 7월의 번호이동 급증에 단통법 폐지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8월에는 전월 대비 32.6% 급감한 64만 건을 기록하였고, '25.9월 이후에는 번호이동 규모가 점차 안정화되어, 약 55만~64만 건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는 등 이벤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

I 그림 3 I 월별 이동전화 번호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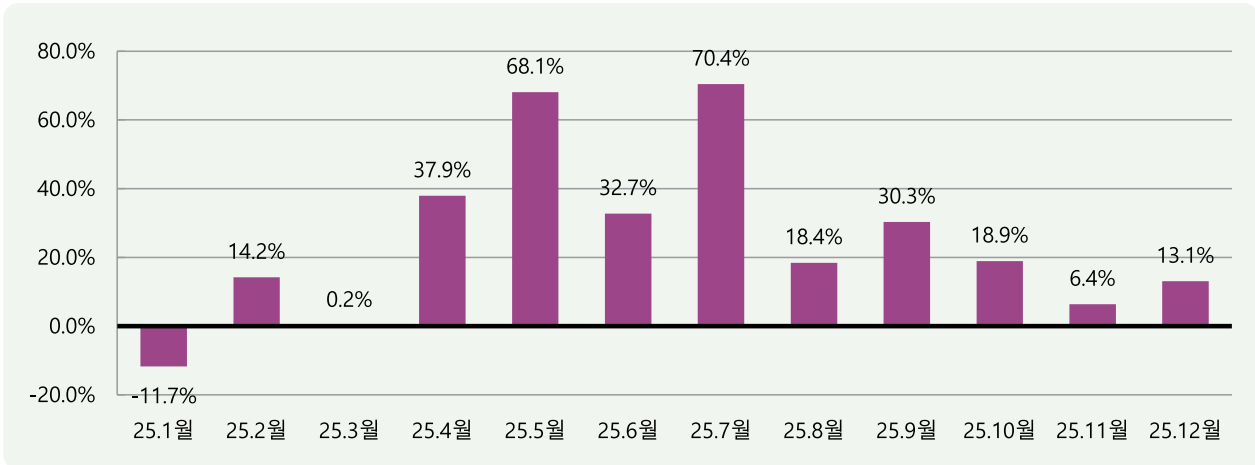
(단위: 만 건)



자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25.4월 SKT 침해사고 및 7월 위약금 면제 등으로 4월(37.9%) ~5월(68.1%) 및 7월(70.4%)에 다른 월 대비 크게 상승

그림 4 | 전년 동월 대비 이동전화 번호이동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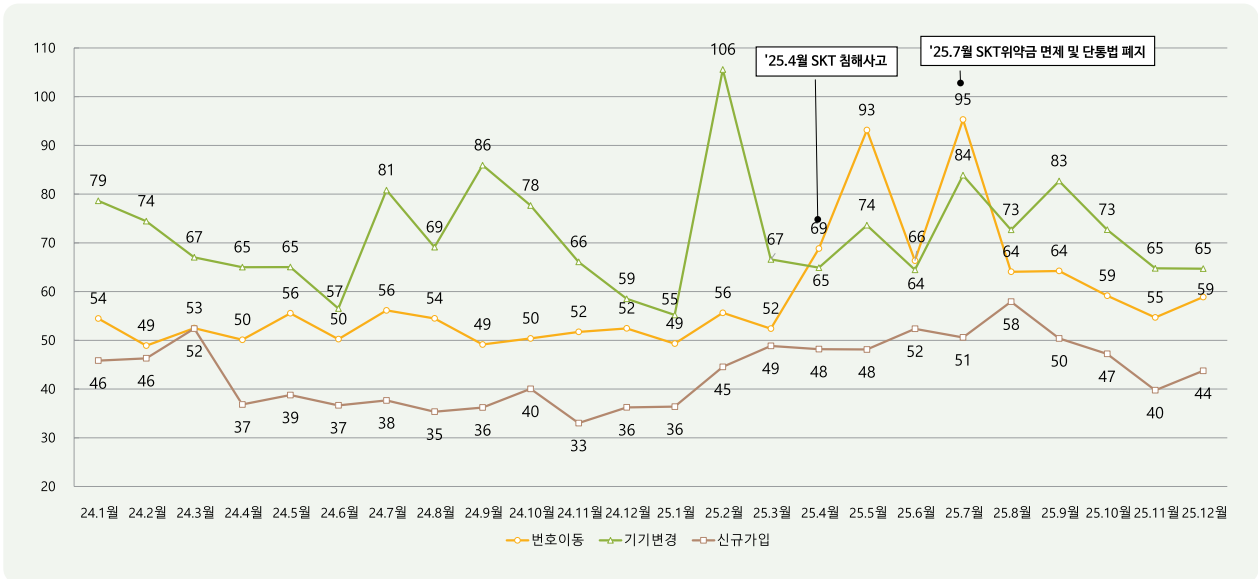


자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나. 휴대폰 가입유형별 회선 추이

- 최근 2년간 휴대폰 가입유형은 기기변경 위주의 흐름을 보였으나, '25년 중반(4~7월)에는 번호이동량이 급증하며 기기변경 비중을 일시적으로 상회함
 -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기기변경이 월 60~80만 건 수준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번호이동은 약 50만 건 내외, 신규가입은 약 35~50만 건 수준에서 형성되는 구조를 보임
 - '25.4월 번호이동(69만 건)이 기기변경(65만 건)을 처음으로 추월하며 가입자 이동성이 급격히 확대됨
 - 이러한 역전 현상은 5월(번호이동 93만 vs 기기변경 74만), 6월(66만 vs 64만), 7월(95만 vs 84만)까지 4개월 연속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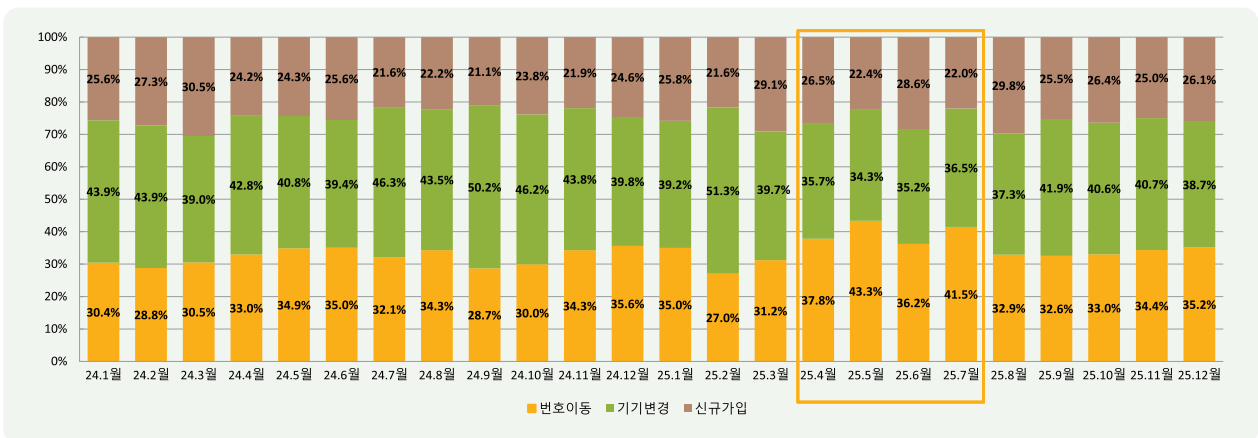
그림 5 | 월별 휴대폰 가입유형별 회선수 추이 (단위: 만 건)



주: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통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간에는 일부 수치 차이가 존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각호.

- 가입유형별 회선수 비중을 살펴보면, '25.4월부터 '25.7월까지 4개월간 번호이동 비율이 기기변경 비율을 상회하였으며, 그 외 기간에는 기기변경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 월별 휴대폰 가입유형별 회선수 비중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각호.

다. (종합 분석) 외부 요인에 따른 가입자 이동 패턴의 단기적 변화

- 평시 기기변경 중심의 시장 구조가 특정 사건 발생에 따라 번호이동 중심으로 단기 재편되는 양상을 보임
 - 4월 침해사고 발생 직후 번호이동 규모가 기기변경을 상회하며 시장의 이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역전 현상은 7월까지 4개월간 지속됨
 - 5월은 침해사고에 따른 이탈 수요 집중으로 번호이동 비중이 분석 기간 내 최고치(43.3%)를 기록함
 - 7월은 위약금 면제 조치 등 실질적인 전환 장벽 제거에 따라 번호이동 규모가 최고치(96만 건)를 기록함
- '25년 하반기부터는 번호이동 규모가 평시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기존의 기기변경 중심 구조로 다시 안정화되는 양상이 관찰됨

03 사업자 간 가입자 이동 구조 분석

- 본 장에서는 연도별·월별 전환확률 지표를 활용하여 번호이동 시장의 장기적 이동 구조와 주요 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단기적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전환확률은 기준 시점의 가입자가 분석 기간(연/월) 동안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타 사업자로 이동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사업자 간 번호이동 실적을 기반으로 산출함
 - '잔존확률'은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그 사업자를 유지할 확률, '전환확률'은 사업자를 이동할 확률을 의미
 - ※ 기준 시점 가입자 수를 분모로, 동일 사업자 잔존 규모(잔존확률) 또는 타 사업자 이동 규모(전환확률)를 분자로 산출함. SKT의 전환확률 행렬 예시는 다음과 같음

From/To	SKT	KT	LGU+	MVNO
SKT	잔존확률	KT로 전환확률	LGU+로 전환확률	MVNO로 전환확률

- 다만, 본고에서 제시하는 잔존 및 전환확률은 번호이동 실적 기반 지표로서 신규가입 및 해지 등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I 연도별 전환확률 및 잔존확률 분석

- 본 절에서는 전환확률은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초기 시점인 '15년을 기준으로, 번호이동 규모가 가장 낮은 '22년과 최근 시점인 '24년 및 '25년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시기별 사업자 간 이동 구조 변화를 파악하고, 잔존확률은 장기 추이를 통해 가입자 유지 수준의 변화를 분석함

가. 전환확률 행렬 분석

- 사업자 간 전환확률을 비교하면, '15년 대비 사업자 간 이동은 '22년 감소 이후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 전술한 번호이동 규모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 | 사업자 전환확률

출발(From)	구분(To)	2015년	2022년	2024년	2025년
SKT	타 MNO(KT, LGU+)	8.8%	4.2%	4.6%	7.4% ▲
	MVNO(알뜰폰)	1.6%	2.2%	2.0%	2.2%
KT	타 MNO(SKT, LGU+)	13.1%	4.8%	5.8%	6.1% ▲
	MVNO(알뜰폰)	2.1%	2.9%	2.2%	2.1%
LGU+	타 MNO(SKT, KT)	15.0%	6.2%	7.3%	8.0%
	MVNO(알뜰폰)	1.7%	2.9%	2.4%	2.2%
MVNO	MNO 3사 합계	9.4%	6.0%	7.2%	8.7%

-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LGU+의 타 MNO 전환확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SKT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 LGU+는 '15년(15.0%) → '22년(6.2%) → '25년(8.0%)으로 전 기간에 걸쳐 타 사업자 대비 높은 전환확률을 유지
 - SKT는 '15년(8.8%) → '22년(4.2%) → '25년(7.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구조를 유지
- 다만, '25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온 SKT의 타 MNO 전환확률이 7.4%로 상승하며 KT(6.1%)를 상회하는 등 기존 이동 구조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남
 - 이는 평소 대비 SKT 가입자의 이탈이 예외적으로 확대된 결과로, 특정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가입자 유지 구조가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풀이됨
- 한편, MVNO로의 전환확률은 전 기간에 걸쳐 약 2% 내외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 나타남
 - SKT(1.6%→2.2%), KT(2.1%→2.1%), LGU+(1.7%→2.2%) 등으로 큰 변동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

[참고] 사업자 전환확률 행렬

● 2015년

From/To	SKT	KT	LGU+	MVNO
SKT	89.5%	4.8%	4.0%	1.6%
KT	8.6%	84.8%	4.5%	2.1%
LGU+	9.1%	5.9%	83.4%	1.7%
MVNO	4.2%	3.0%	2.2%	90.6%

● 2022년

From/To	SKT	KT	LGU+	MVNO
SKT	93.6%	2.0%	2.2%	2.2%
KT	3.3%	92.3%	1.5%	2.9%
LGU+	4.3%	1.9%	90.9%	2.9%
MVNO	3.2%	1.3%	1.5%	94.0%

● 2024년

From/To	SKT	KT	LGU+	MVNO
SKT	93.4%	2.2%	2.4%	2.0%
KT	3.8%	92.0%	2.0%	2.2%
LGU+	4.9%	2.4%	90.3%	2.4%
MVNO	3.5%	1.5%	2.3%	92.8%

●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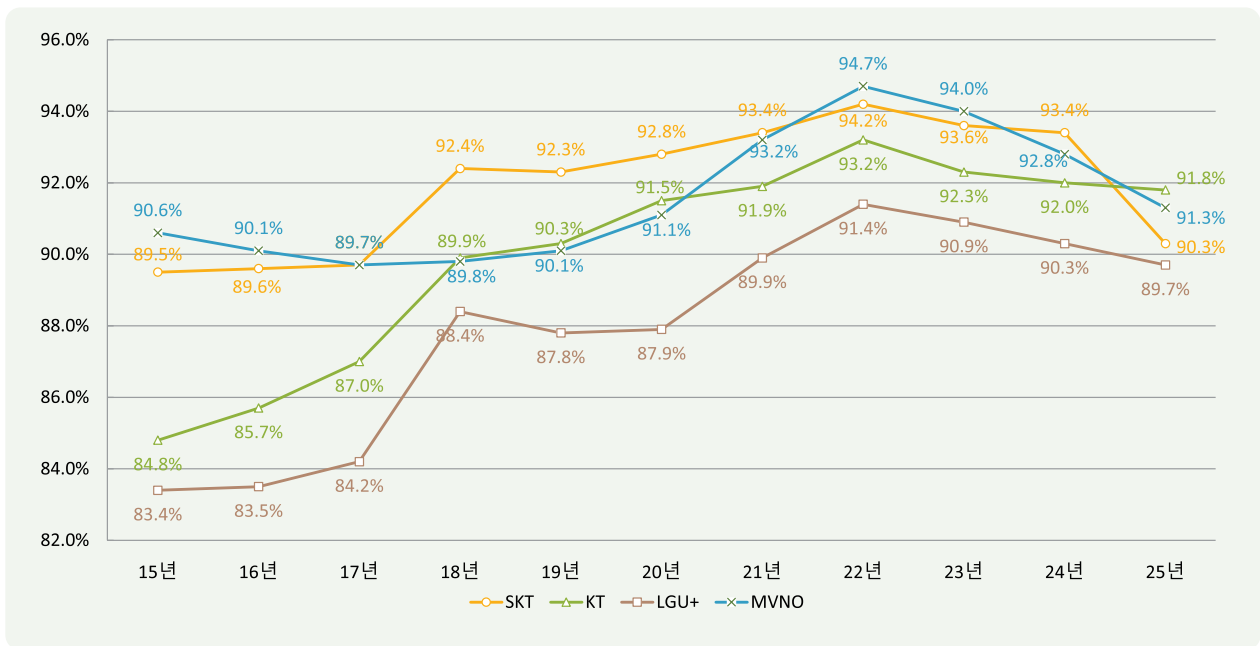
From/To	SKT	KT	LGU+	MVNO
SKT	90.3%	3.7%	3.7%	2.2%
KT	4.0%	91.8%	2.1%	2.1%
LGU+	5.2%	2.8%	89.7%	2.2%
MVNO	4.1%	2.0%	2.6%	91.3%

나. 잔존확률 추이

- (전반적 흐름) '15~'25년 동안 잔존확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22년(91~95%)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
 - 다만 사업자별로 잔존확률 수준과 변화 추세에는 차이가 나타남

- (SKT)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잔존확률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하락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 '15년 89.5%에서 '22년 94.2%까지 상승 후 '25년 90.3%로 하락
- (KT) 잔존확률이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하며 유지됨
 - '15년 84.8%에서 '22년 93.2%까지 꾸준히 상승, '25년(91.8%)에도 하락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타사 대비 상대적인 안정성을 보임
- (LGU+) 사업자 중 가장 낮은 잔존확률을 유지
 - '15년 83.4%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출발, '22년에는 91.4%까지 증가하였고, '25년 89.7%로 사업자 중 유일하게 90% 하회
- (MVNO) 타 사업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잔존확률(대부분 90% 이상 유지)을 보이나, 최근 하락폭이 관찰됨
 - '22년에는 94.7%로 최고치를 기록, '25년에는 91.3%로 하락

그림 7 | 연도별 사업자 잔존확률 추이



자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각호.

I 월별 전환확률 및 잔존확률 분석

- 본 절에서는 최근 2년간(´24.1월~´25.12월)의 잔존확률·전환확률 추이를 통해 사업자 간 가입자 이동 패턴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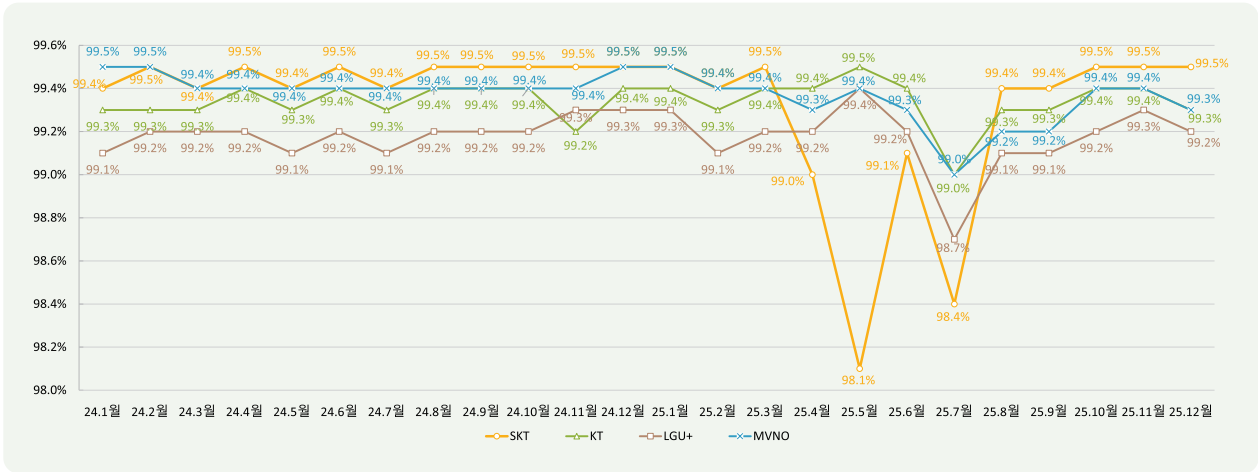
가. 사업자별 잔존확률 추이

- 분석 기간 동안 대부분 사업자의 잔존확률이 99% 이상* 수준을 유지하나, 시기별 사건에 따라 사업자 간 변동 폭과 유지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월 단위 지표 특성상 전체 가입자 모수 대비 실제 이동 인원이 소수이므로 수치가 높게 형성되나, 0.1%p 단위의 변동은 시장 내 수만 명의 가입자 이동을 시사하는 유의미한 지표임

- (SKT: 특정 시기 급락 후 회복) 평시 약 99.4~99.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5년 4~5월 및 7월에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25.5월(98.1%) : 분석 기간 중 전 사업자 통틀어 가장 낮은 잔존확률을 기록하였는데, 침해 사고 여파에 따른 이탈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25.7월(98.4%) : S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등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으나, 8월 이후 다시 평시 수준으로 회복함
- (KT: 안정적 유지) 분석 기간 내내 99.2~99.5% 수준에서 가장 기복 없이 안정적인 가입자 유지 구조를 보임
 - ´24.1월~´25.6월 기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25.7월에는 99.0%로 하락하였으나 타사 대비 하락 폭이 가장 작음
- (LGU+: 타사 대비 낮은 수준 유지) 대체로 99.1~99.3% 수준을 유지하며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5.7월(98.7%)에는 잔존율이 99%를 하회하였으며, 이는 SKT(98.4%)와 함께 해당 시기 가입자 이동이 가장 활발했던 사업자로 분류됨
- (MVNO: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분석 기간 내내 99.3~99.5%의 높은 잔존확률을 안정적으로 유지
 - 특히 ´25.7월에는 SKT(98.4%)와 LGU+(98.7%)의 잔존확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MVNO의 잔존확률은 99.0%로 높은 수준을 유지

그림 8 | 월별 사업자 잔존확률 추이



자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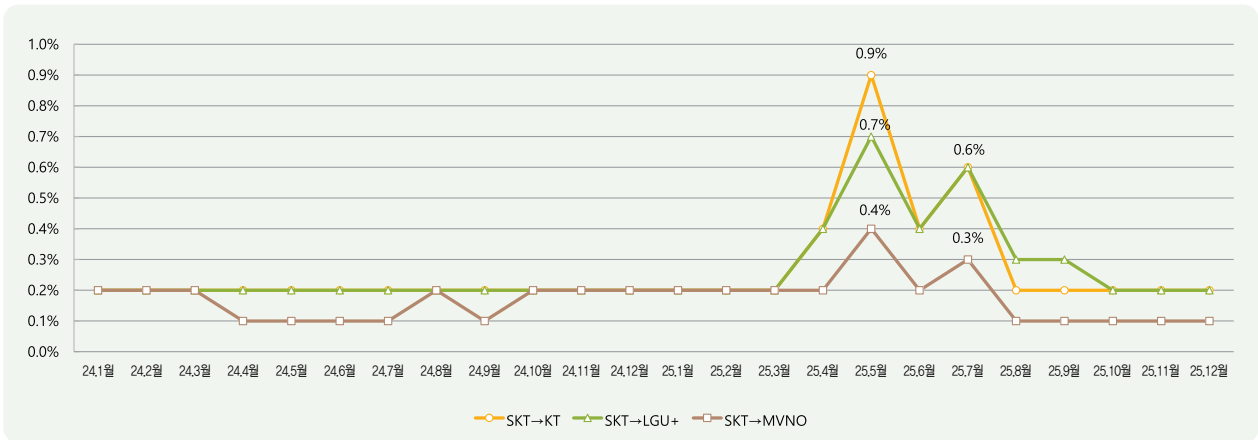
● 종합 분석

- (사업자별 차이) SKT와 MVNO는 전반적으로 높은 잔존확률을 유지하는 반면, LGU+는 상대적으로 낮은 잔존확률을 유지하는 경향이 확인됨
- (´25.5월) 타 사업자의 잔존확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반면, SKT의 잔존확률만 하락하였는데, 이는 사고로 인한 해당 사업자의 가입자 이탈 증가가 지표에 반영된 결과임
- (´25.7월) 전 사업자의 잔존확률이 일제히 하락한 것은 정책 변화(SK트 위약금 면제 및 단통법 폐지 배경)로 인해 시장 전체의 가입자 이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시사함

나. 사업자 간 전환확률 추이

- (SKT) SKT→타 사업자 전환확률은 평시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5.4월 이후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평시 0.1~0.2% 수준에서 안정적이던 전환확률이 ´25.4월 KT(0.4%), LGU+(0.4%)로 상승하고 ´25.5월에 KT(0.9%), LGU+(0.7%), MVNO(0.4%) 순으로 일제히 급증함
 - 특히 경쟁 MNO(KT, LGU+)로의 전환율이 MVNO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쟁 MNO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남
 - 이후 ´25.6~7월(KT, LGU+ 각 0.6%)에도 전환확률이 평시 대비 높게 유지되다, ´25.8월 이후 다시 기존 수준으로 안정화됨

그림 9 | SKT 가입자의 사업자별 전환확률 추이



자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각호.

● (KT) 안정적인 수준 유지 및 특정 시점의 일시적 변동

- KT→SKT 전환확률은 평시 약 0.3% 수준이었으나, 25.5월 0.1%로 급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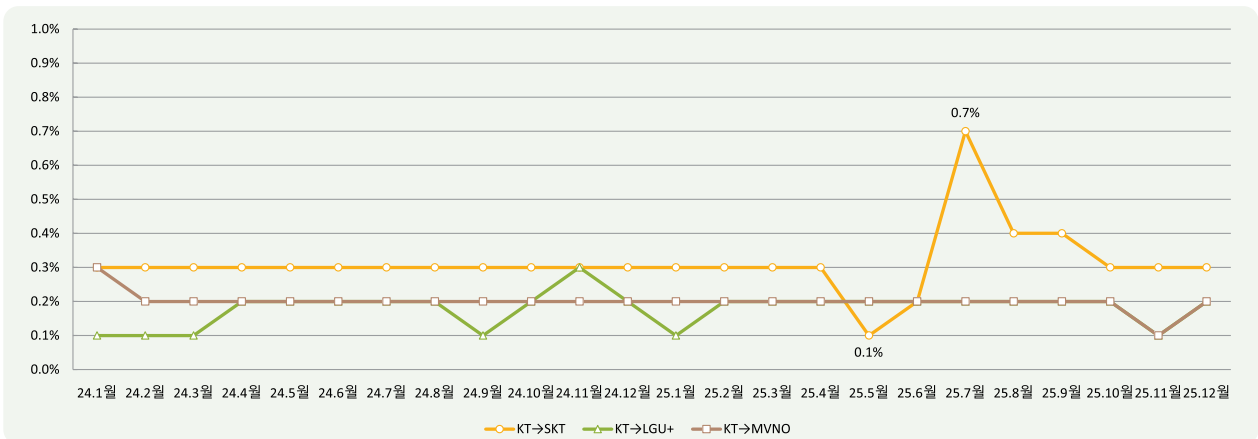
- 이는 당시 SKT에 대한 행정지도(신규모집 중단, 5.5~6.23일)*로 인해 타사 가입자의 SKT 유입이 제한된 영향이 지표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1일 SKT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모집 중단을 행정지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SKT는 5.5~6.23일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함

- 이후 25.7월에는 평시 대비 2배 이상인 0.7%로 급등함

- 반면, KT→LGU+, MVNO 전환확률은 대부분 0.1~0.2% 수준에서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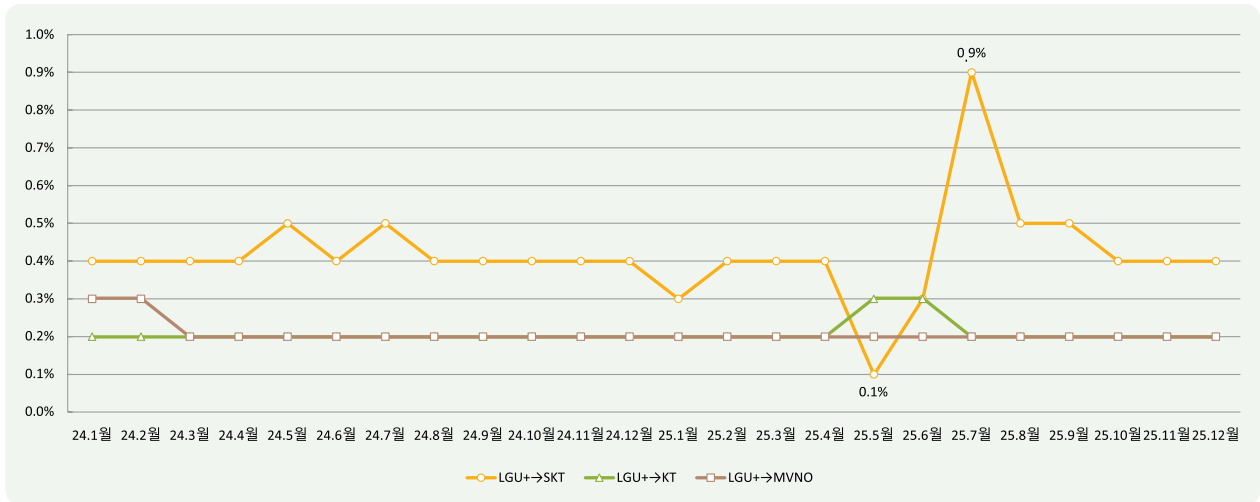
그림 10 | KT 가입자의 사업자별 전환확률 추이



자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각호.

- (LGU+) 상시 높은 전환 성향 및 7월의 집중 이동
 - LGU+→SKT 전환확률은 평시에도 약 0.4~0.5%로 타사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5.5월에는 SKT 신규모집 중단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 하락(0.1%)을 보임
 - 이후 '25.7월 0.9%로 분석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반면, LGU+→KT 및 MVNO 전환확률은 약 0.2%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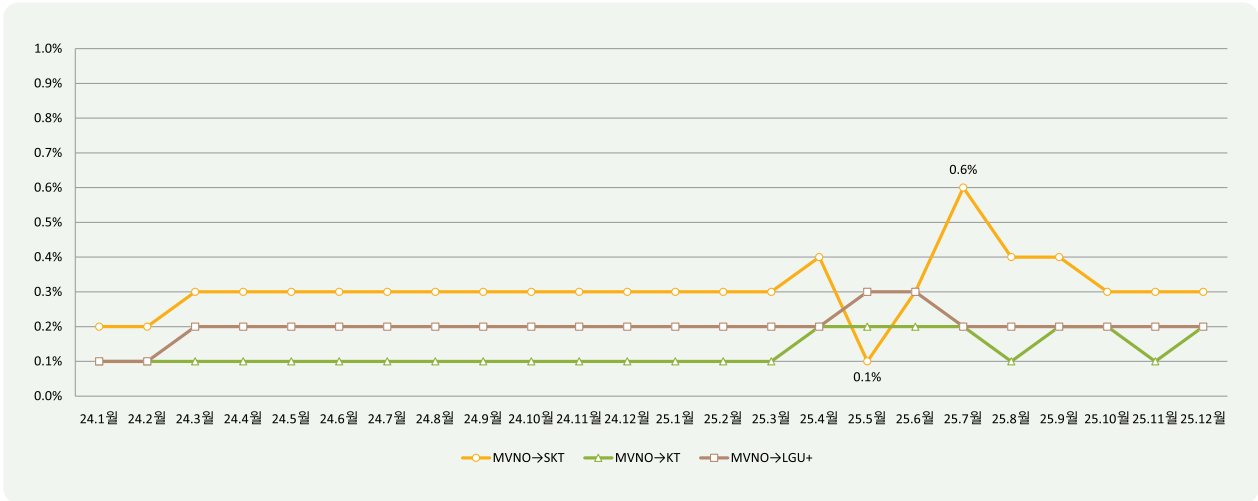
그림 11 | LGU+ 가입자의 사업자별 전환확률 추이



자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 (MVNO) 낮은 전환확률 유지 및 7월 이동 확대
 - MVNO→SKT 전환확률 또한 '25.5월 SKT 신규모집 중단 등의 영향으로 평시 대비 낮은 수준(0.1%)을 기록했으나, '25.7월에는 0.6%로 상승
 - 이는 분석 기간 내 최고치이나, 동기간 경쟁 MNO(KT 0.7%, LGU+ 0.9%) 대비 낮은 수준임
 - 반면, MVNO→KT 및 LGU+ 전환확률은 대부분 0.1~0.2%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됨

그림 12 | MVNO 가입자의 사업자별 전환확률 추이



자료: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 종합 분석

- (‘25.5월) SKT 가입자의 타사 전환확률(유출)은 정점에 달한 반면, 타사 가입자의 SKT 전환확률(유입)은 전 사업자 0.1%로 분석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함
- 이는 SKT 침해사고로 인한 가입자 이탈과 신규 영업 중단(‘25.5.5~6.23)에 따른 제한이 지표에 동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SKT 이탈 가입자의 이동 경로는 알뜰폰(MVNO)보다 경쟁 MNO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KT로의 유출(0.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유출) SKT → KT(0.9%), LGU+(0.7%), MVNO(0.4%)
 - (유입) KT/LGU+/MVNO → SKT(각 0.1%)
- (‘25.7월) 위약금 면제 및 제도 변화로 SKT로부터의 유출과 유입이 동시에 급격히 확대되며,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분석 기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모든 사업자로부터의 유입이 늘어난 가운데, LGU+ 가입자로부터의 전환(0.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 (유출) SKT → KT/LGU+(0.6%), SKT → MVNO(0.3%) / 평시(0.1~0.2%) 대비 2~3배 상승
 - (유입) KT(0.7%), LGU+(0.9%), MVNO(0.6%) → SKT / 분석 기간 내 최고치
- (사업자별 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KT와 MVNO는 타사 대비 낮은 전환확률을 유지하는 반면, LGU+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환 성향을 보이는 것이 재차 확인됨

I 사건 및 정책 영향 분석

- 본 절에서는 잔존확률 및 전환확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5년 발생한 주요 사건(침해사고)과 정책 변화(위약금 면제 조치, 단통법 폐지 배경)가 가입자 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가. SKT 침해사고 영향

- (이탈 확대) 사고 이후 SKT 잔존확률은 평시 대비 1.4%p 급락(99.5%→98.1%)하며 분석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타 사업자의 잔존확률이 기존 흐름을 유지한 것과 대비됨
 - ※ '25.5월 잔존확률: SKT 98.1% vs. KT 99.5%, LGU+/MVNO 99.4%
 - 유출 시 MVNO(0.4%)보다 경쟁 MNO(KT 0.9%, LGU+ 0.7%)로의 전환확률이 최대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 '25.5월 전환확률: SKT → KT(0.9%), LGU+(0.7%), MVNO(0.4%)
- (유입차단에 따른 일방향 이동) 행정지도에 의한 신규모집 중단(5.5~6.23일)으로 타사→SKT 유입 확률이 평시 대비 1/3 수준인 0.1%까지 하락하며, 유입과 유출의 비대칭성이 발생함
 - ※ '25.5월 전환확률: KT/LGU+/MVNO → SKT(각 0.1%)

나. 위약금 면제 및 정책 변화 영향

- (시장 이동성 확대) '25.7월 SKT 위약금 면제 조치 시행으로 가입자 이동 장벽이 해소되며 번호 이동량은 분석 기간 중 최고치(96만 건)를 기록함
 - 전 사업자 잔존확률은 동시에 하락하였으며, 특히 SKT(98.4%), LGU+(98.7%)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 '25.7월 잔존확률: SKT 98.4%, LGU+ 98.7%, KT/MVNO 99.0%
- (양방향 이동 활성화) SKT 위약금 면제로 SKT 가입자의 유출(0.6%)과 유입(최대 0.9%)이 동시에 분석 기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양방향 이동 패턴이 확인됨
 - ※ '25.7월 전환확률: (유출) SKT → KT/LGU+(0.6%), SKT → MVNO(0.3%) / 평시(0.1~0.2%) 대비 2~3배 상승 (유입) KT(0.7%), LGU+(0.9%), MVNO(0.6%) → SKT / 분석 기간 내 최고치
 - 이는 단통법 폐지* 배경 등 정책적 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됨
 - * 단통법 폐지 관련 법안이 7.22일 시행되었으나, 시장 내 선반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급증 현상의 유일한 직접적 원인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변동의 일시성 및 구조적 안정 유지) 해당 변동은 8월 이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시장 전반의 지속적인 방향성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04 결론 및 시사점

- 본고는 '04년 번호이동 제도 도입 이후의 장기적 추세와 '24~'25년 발생한 주요 시장 변수(침해사고, 정책 변화 등)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가입자 이동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시장의 안정화 구조 속에서도 특정 외부 충격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 확대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시장 구조) 최근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은 과거에 비해 낮은 이동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25년 특정 사건 및 제도 변화에 따라 가입자 이동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임
 - 연도별 분석 결과,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가입자 잔존확률은 '23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외부 충격과 정책적 배경(단통법 폐지)이 맞물리며 잔존확률의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남
 - ※ 번호이동량 추이: ('07년~'13년) 연간 약 1,000만 건 수준 → ('18년~'24년) 연간 500~600만 건 수준(안정화) → ('25년) 788만 건으로 상승
 - ※ 잔존확률 추이: ('22년) 91~95%(정점) → ('25년) 89~92% 수준으로 하락세 지속
 - 월별 분석에서도 평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가입자 유지 지표가 '25년 중반에 단기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 월간 번호이동량: (평시) 약 50만 건 → ('25.5월) 93만 건 → ('25.7월) 96만 건
 - ※ 잔존확률 변동: ('25.5월) SKT 98.1%(분석 기간 내 최저치) / ('25.7월) 전 사업자 평균 98.8%로 일제히 하락
- (시기별 특징) 4~5월의 'SKT로부터의 일방향 이동'과 7월의 '양방향 이동'
 - ('25.4~5월) SKT 침해사고 여파로 번호이동 시장구조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SKT의 신규 영업 중단(5.5~6.23일) 등이 맞물림에 따라 SKT의 잔존확률만 감소하는 'SKT로부터의 일방향 이동'이 나타남
 - ※ '25.5월 잔존확률: SKT 98.1% (평시 99.5% 대비 1.4%p 하락, 분석 기간 내 최저치)
 - ※ '25.5월 전환확률: (유출) SKT → KT 0.9%, LGU+ 0.7%, MVNO 0.4% / (유입) 타사 → SKT 각 0.1%
 - ('25.7월) SKT 위약금 면제 조치 및 단통법 폐지 배경 등에 의한 '양방향 이동' 국면으로, 전 사업자의 잔존확률이 동시에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됨
 - 5월은 SKT의 신규 영업 중단으로 가입자 유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탈만 발생하였으나, 7월은 위약금 면제 조치로 유출과 유입이 동시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

※ '25.7월 잔존확률: SKT 98.4%, LGU+ 98.7%, KT/MVNO 99.0%

※ '25.7월 전환확률: (유출) SKT → KT/LGU+ 각 0.6% / (유입) LGU+(0.9%), KT(0.7%), MVNO(0.6%) → SKT

- SKT는 전반적으로 타사 대비 높은 잔존확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 SKT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 : ('14년 말) 47.1% → ('25년 말) 38.8%
 - 이는 점유율 하락이 기존 가입자의 이탈보다는, 번호이동 지표에 포착되지 않는 신규가입을 통한 유입이 상대적으로 둔화된 점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최근 들어 관찰된 번호이동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현재까지는 시장의 근본적인 장기 구조 변화보다는 사건 중심의 단기적 반응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각호.

KTOA,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

KiSDi Perspectives 발간 내역



KiSDi Perspectives는 국내외 정보통신미디어 관련 주요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문의: 노희윤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 hyooooon@kisdi.re.kr, 043-531-4042)